

## 한국전쟁기의 (재)구성

유서현\*\*

염상섭의 『홍염』·『사선』론\*

**초록** 염상섭의 『홍염』·『사선』은 일상성·통속성에 매몰된 태작으로 치부되어 오랫동안 연구사에서 소외되어왔다. 그러나 이 연작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재조명될 가치가 있다. 첫째, 『홍염』·『사선』은 한국전쟁에서의 가시적인 적(북한과 공산진영)이 아니라 전쟁을 불러온 비가시적인 책임자들(미국과 남한정부)을 주목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1950년 6월 말이 단지 한국전쟁의 전야가 아니라 중소조약 체결 이후 불안을 느낀 미국이 대일강화조약을 준비하면서 냉전을 심화시킨 시기임을 상기시킨다. 또한 미국과 유엔에 지나치게 의존하던 남한정부가 한국전쟁 초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면서 혼란이 가중되었음을 폭로한다. 둘째, 『홍염』·『사선』은 해방기에 남북협상 및 평화통일을 지지했던 중간과 염상섭의 현재적 심경을 엿보게 해준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요한다. 염상섭은 1950년과 1948년에 벌어진 특정 사건들을 한 데 선별해 제시하는데, 이 사건들을 묶어주는 주제가 바로 좌우협작 통일론이다. ‘무소속=중간파’의 대두 및 평화통일론자 조봉암을 주된 키워드로 삼아 5.30 선거가 거론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홍염』·『사선』의 연에서사는 1950년대 남성 지식인인 염상섭의 정치적 상상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오늘날의 독자들이 새로운 정치성을 발견해낼 수 있는 가능성의 장이다. 염상섭은 ‘한반도의 평화를 깨뜨린 책임자’와 ‘가정의 평화를 깨뜨린 책임자’를 중첩시키는 전략을 통해 냉전기 한반도에 대한 그의 문제의식을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가정을 이탈하는 중년 여성들은 작품의 핵심적인 비판 대상이 되지만, 이들의 모습이 주요하게 초점화된다는 바로 그 점으로 인해 도리어 대항적 해독(oppositional decoding) 또

\* 『홍염』·『사선』의 원문 및 저자수정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21세기 신규 장각 자료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도에 진행된 ‘해방 이후 염상섭 문학과 ‘전쟁’ 연구팀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세미나를 함께한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한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한 가능해진다. 선옥-호남-취원의 삼각관계가 아닌 선옥과 취원의 관계 발전으로 시선을 돌리면 『홍염』·『사선』의 연애서사는 남성 가부장의 존재/부재가 아닌 여성들 간의 모방과 인정을 통해 여성의 주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

주제어  염상섭, 『홍염』·『사선』, 냉전, 5.30 선거, 여성 주체성

## 1. 들어가며

염상섭의 해방 이후 장편소설이 현실에 대한 응진력을 상당 부분 상실하고 풍속 소설적 차원으로 떨어졌다는 통설이 비판되기 시작한 것도 10년을 훌쩍 넘기고 있다. 이제 제법 연구가 쌓여 그 경향을 갈래지어볼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해방 이후 염상섭 문학의 역사성 부재에 대한 통념을 전면적으로 반박하며, 해방기·전쟁기 한반도 정세에 대한 염상섭의 정치의식을 읽어내는 연구들이 있다.<sup>1</sup> 그리고 이 연구들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면서도 ‘인민군 치하 서울’이나 ‘피난지 부산’ 등 특히 공간의 의미에 주목해 전개되는 연구들이 있다.<sup>2</sup> 피난지 부산을 주목하는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미국의 원조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이는데, 이 연구들의 곁에 미국에 대한 당

- 
- 1 안서현(2013), 「‘효풍’이 불지 않는 곳」, 『한국현대문학연구』 39, 한국현대문학회; 정중현(2014), 「1950년대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정치와 윤리」, 『동악어문학』 62, 동악어문학회; 김영경(2016), 「단정 이후 염상섭의 정치의식과 미완의 서사」, 『현대소설연구』 64, 한국현대소설학회; 김민수(2020), 「제국을 넘나든 새벽바람」, 『효풍』의 미학과 주체의 포이에시스」, 『상허학보』 59, 상허학회; 박성태(2021), 「단정 수렴 이후 염상섭 문학의 중도적 정치성 연구(1948~1950)」, 『현대소설연구』 83, 한국현대소설학회 등.
  - 2 배하은(2015), 「전시의 서사, 전후의 윤리」, 『한국현대문학연구』 45, 한국현대문학회; 나보령(2017),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피난지 부산과 아메리카니즘」, 『인문논총』 74(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김영경(2017), 「적지하 ‘서울’의 소설적 형상화」, 『어문연구』 45(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김영경(2018), 「한국전쟁기 ‘임시수도 부산’의 서사화와 서사적 실험」, 『구보학보』 19, 구보학회; 오테영(2020), 「한국전쟁기 남한사회의 공간 재편과 욕망의 동력학」, 『사이間SAI』 29,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등.

대 일반 시민 그리고/혹은 작가의 시각을 살피는 연구들도 위치시킬 수 있다.<sup>3</sup> 마지막으로 전후 여성성과 남성성을 주제로 하는 많은 연구가 제출되었는데 특히 전쟁과부의 문제가 주목받아왔다.<sup>4</sup>

이러한 선행연구의 성과에 힘입어 해방 이후의 염상섭 문학은 점차 재평가되고 있지만, 연구 대상들 간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미망인』 연작은 전쟁과부를 주제로 비교적 일찍부터 연구되었고, 『취우』와 『효풍』의 정치성은 해방 이후 염상섭 작품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재고되었으며, 『난류』와 『젊은 세대』 연작도 점차 단독 논문이 축적되는 가운데, 여전히 소외되어있는 것이 『홍염』·『사선』 연작이다.

『홍염』·『사선』 연작은 『취우』보다 조금 이른 시기인 1952년 1월 『자유세계』에 연재를 시작하여 1953년 2월까지 8회를 발표하고, 4년여의 긴 휴지기를 거쳐 1956년 10월에 연재를 재개해 1957년 4월에 미완으로 종료된 장편소설이다. 작중 인물 가운데 김난이의 나이가 바뀌거나 박영선 가족의 5남매가 6남매가 되는 등 약간의 균열은 있으나, 『홍염』과 『사선』은 긴 시차에도 불구하고 큰 위화감 없이 이어지는 연작이다.

이야기는 1950년 6월 23일부터 시작해 가을로 접어드는 9월 초중순에 막을 내린다. 『취우』 연작과 달리 작중 인물들은 다른 도시로 피난을 가지 않고 인민군 치하의 서울에 줄곧 머무르며, 원남동(영선네), 아현동(영애네), 돈암동(의순네), 현저동(피난처1), 능안(피난처2), 인사동(소옥네, 피난처3) 등 인물들의 각 거처가 주된 공간적 배경으로 등장한다. 핵심 인물군은 박영선

- 
- 3 김학균(2014), 「염상섭 장편소설에 나타난 미국인과 ‘아메리카니즘」, 『도시인문학연구』 6(1),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전훈지(2017), 「미국화 수용에 따른 작중 인물의 태도 연구」, 『춘원연구학보』 10, 춘원연구학회 등.
- 4 김중욱(2004), 「한국전쟁과 여성의 존재 양상」, 『한국근대문학연구』 9, 한국근대문학회; 김태진(2005), 「전후의 풍속과 전쟁 미망인의 서사 재현 양상」, 『현대소설연구』 27, 한국현대소설학회; 허윤(2013), 「1950년대 전후 남성성의 탈구축과 젠더의 비수행」, 『여성문학연구』 30, 한국여성문학학회; 이철호(2013), 「반공과 예외, 혹은 불가능한 공동체」, 『대동문화연구』 8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정보람(2016), 「탕녀와 가장」, 『현대소설연구』 61, 한국현대소설학회 등.

(45~6세)-이선옥(42세)의 가족과 장취원(42세)-최호남(30세)-영애(27세)의 가족이다. 두 가족이 얽히게 된 내력과 작품의 줄거리를 먼저 짚고 가자. 최호남의 본처는 영애이다. 그런데 그들이 세를 들려고 했던 원남동 집의 집주인인 장취원이 호남에게 한눈에 반하면서, 영애와 자식들에게는 취원이 따로 집을 얻어주고 호남은 취원과 함께 살게 된다. 이후 취원은 그가 기생으로 일하던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박영선에게 원남동 집을 팔기로 한다. 피차 아는 사이에 집을 매매한 터라, 취원과 호남이 새 집을 구하기 전까지 원남동 집에서는 박영선 가족과 장취원 가족이 같이 지내게 된다. 이렇게 한 지붕 아래 사는 동안 박영선의 아내인 이선옥이 최호남과 새로이 연애 관계를 맺는다. 한국전쟁 발발 직전에 시작된 선옥과 호남의 관계는 전쟁 중에도 계속해서 이어진다. 한편 우익 언론인으로 알려진 박영선은 전쟁 발발 후 피난지를 옮겨 다니며 몸을 숨기고, 장남 상근과 차남 광근이 각기 공산주의자와 국군으로 참전하면서 가족 간 불신과 갈등이 점차 심해진다.

『홍염』·『사선』의 서지사항 및 줄거리와 인물의 특성 등은 1974년 김종균의 『염상섭 연구』에서 처음 소개되지만<sup>5</sup> 이후 본격적인 연구 대상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염상섭의 전쟁기 활동에 천착한 신영덕(1992)이 전쟁 기간 동안 발표된 두 장편소설 중 하나로서 『홍염』·『사선』의 인물 특성과 구성을 간략히 검토했을 뿐이고,<sup>6</sup> 염상섭 후기 문학에 대한 주요 초기 저서로 거론되는 김윤식의 『염상섭 연구』<sup>7</sup>나 김경수의 『염상섭 장편소설 연구』<sup>8</sup> 등에서는 『홍염』·『사선』이 거론되지 않았다. 2000년대 이후에는 여전히 『홍염』·『사선』을 단편으로 비판하는 경우도 있지만<sup>9</sup> 조금 더

5 김종균(1974), 『염상섭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pp. 239-241.

6 신영덕(1992), 「전쟁기 염상섭의 해군 체험과 문학활동」, 『한국학보』 18(2), 일지사, pp. 48-50.

7 김윤식(1987), 『염상섭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8 김경수(1999), 『염상섭 장편소설 연구』, 일조각.

9 배경렬은 한국전쟁 이후의 염상섭의 소설을 전반적으로 분석하며 “『홍염』 연작은 이념적 문제를 원경으로 처리하고 이와 분리된 중노녀들의 개인적인 애욕과 심리적 갈등에

긴 호흡으로 새로이 『홍염』·『사선』을 다룬 소수의 연구들도 등장했다. 미국의 냉전정책에 대한 염상섭의 통찰에 주목한 나보령(2017)이나 인공치하 서울이라는 공간성이 야기한 인물들의 변모양상을 고찰한 오태영(2020)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2018년 『홍염·사선』이 단행본으로 출간되면서 이종호가 작품을 창작하던 시기의 염상섭의 상황과 발표지인 『자유세계』의 성격, 연구사 검토 등을 포함한 해설을 수록하기도 했다.<sup>10</sup> 이 연구들은 그간 망각되어 있던 『홍염』·『사선』을 다시 논의의 대상으로 끌어올려 다양한 시사점을 던져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홍염』·『사선』은 일부 장면만이 분석되거나, 혹은 궁극적으로 『취우』 연작을 분석하기 위한 비교 대상으로 자리매김하는 경향이 있어 아쉽다.

기왕의 연구사에서 『홍염』·『사선』이 소외되어 온 것은 다른 작품에 비해 그 특이성이 한눈에 보이지 않는 탓이 클 것 같다. 전쟁과부, 사적(私的) 외교, 세대교체, 수도와 임시수도 등 여타의 작품에서 중시된 주제들이 『홍염』·『사선』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염상섭 문학의 지형도에 쉽게 위치 지어지지 않는다. 더욱이 작품의 전면에 내세워진 연애 서사가 전쟁기라는 현실감각을 압도하는 듯 보이면서 통속소설이라는 인상을 벗어나기 어려워진 듯하다.

그러나 『홍염』·『사선』 연작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재조명될 가치가 있다. 첫째로, 해방 이후 염상섭의 문학에 등장하는 미국에 대한 연구는 종종 이루어져 왔으나 이는 대부분 문화적이거나 경제적인 측면에 집중해서였다. 그러나 문화 방면에서의 전망이 주된 노선이 되는 아메리카니즘, 혹은 대미무역으로 상징되는 자본주의 경제강국 미국에 대해서만으로는 냉전에 대한 염상섭의 정치적 인식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 『홍염』·『사선』은 냉

만 초점을 맞추므로서 구성상의 파탄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한다[배경렬(2007), 「한국전쟁 이후의 염상섭 소설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32, 현대문학이론학회, p. 250].

10 이종호(2018), 「냉전체제하의 한국전쟁을 응시하는 복안」, 『홍염·사선』(염상섭 저), 글누림.

전기 세계정세와 그것의 한국전쟁과의 관련성이 가장 직접적으로 언급된 작품으로, 한국전쟁의 전야를 구성하는 냉전에 대한 염상섭의 정치 감각을 확인하는 데 가장 적합한 텍스트이다.

둘째로, 선행연구들은 해방기 좌우합작통일을 지향한 중간파로서의 염상섭이 단독정부수립과 보도연맹가입을 기점으로 점차 비관적인 자기검열을 하게 되었다고 의견을 모아왔다. 『홍염』·『사선』은 1950년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해방기 좌우합작파에 대한 회고가 저변에 깔려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더불어 1950년 5.30 선거 직후라는 서사적 현재와 1952년 제2대선을 앞둔 작가적 현재가 중첩되어 중간파에 대한 은밀한 기대감이 표출된다. 냉전에 대한 통시와 중간파에 대한 기대는 염상섭의 시야가 ‘조선학’에서 ‘남한학’으로 좁아졌다거나 반공주의적 감시에 몰려 조심스러운 태도로 위축되었다는 기존의 시선<sup>11)</sup>을 재고할 수 있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해방 이후 염상섭이 젊은 세대로 상징되는 새로운 가치를 지지했는지 기성세대가 지녀온 전통적인 가치를 고수했는지에 대한 연구자들의 시각은 종종 갈린다. 『홍염』·『사선』은 이 문제에 있어 특이한 위치를 점한다. 이 작품은 중년 여성과 청년 남성의 연애를 통해 세대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설정은 세대론으로 단순화할 수 없는 염상섭 문학의 새로운 지점을 보여줄 수 있다.

11 해방 이후 염상섭 문학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해방기에 염상섭이 가졌던 중도적 입장이 ‘방관자적 입장’(신영덕)이나 ‘보수주의적 중산층의 입장’(김윤식)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았다. 이후 해방기 염상섭의 행적을 상세히 정리한 김재용은 그가 중간파적 노선에서 지지했던 남북협상 및 통일에 대한 전망이 국민보도연맹가입에의 강제적 가입을 계기로 상실되었다고 말했다(김재용(1999), 「분단을 거부한 민족의식」, 『국어국문학연구』 20, 원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pp. 199-200]. 그 뒤 안서현(2013)은 1949년 7월에 연재된 염상섭의 『무풍대』를 분석하면서 그가 단독정부수립 및 보도연맹가입 이후에도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주장한다. 다만 안서현은 『무풍대』를 기점으로 염상섭의 시야가 ‘분단극복을 위한 조선학’에서 ‘부르주아 독재의 혼탁상을 그려내기 위한 남한학’으로 축소되었다고 보고 있어, 근본적으로는 선행연구들과 입장을 같이 한다. 안서현의 시각은 이후 정종현(2014), 배하은(2015), 박성태(2021) 등에 의해 수용·확장되었다.

본고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과 방향성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홍염』·『사선』론을 전개하고자 한다. 논의를 통해 『홍염』·『사선』이 염상섭의 문학 세계에서 충분히 그리고 적실하게 평가받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 열전의 적에 가려진 냉전의 책임자들

『홍염』·『사선』 연작은 1950년 6월 23일 금요일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일자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첫 장의 제목 ‘전야’(前夜)를 고려하면 이 날짜는 어떤 사건의 전야에 해당하고, 그 어떤 사건이란 한국전쟁이라는 것이 가장 쉬운 결론이다. 그러나 막상 작품을 읽어보면 한국전쟁은 작가의 초점에서 벗겨나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이 작품에서 전쟁은 문밖으로 들리는 소리(비행기, 대포, 방송, 소문)로 지나갈 뿐이다. 국군과 인민군이 작중 인물로 등장하지만 열전의 현장은 전혀 가시화되지 않는다. 『홍염』·『사선』을 한국전쟁을 다룬 소설로 간주할 경우 현실인식이 결여되고 일상에 매몰되었다는 비판적인 시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애초부터 염상섭이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만들면서 부각하려 한 것은 일상성이 아닐 수 있다. ‘전쟁’과 ‘일상’을 비교 대상으로 간주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한국)전쟁’과 ‘냉전’을 견주어보면 『홍염』·『사선』의 의도가 명료하게 보인다. 『홍염』·『사선』의 관심은 ‘전야 뒤의 전쟁’에 있지 않다. 오히려 ‘전쟁 전의 전야’에 있다. 한국전쟁의 전개가 간접 제시되는 것과 달리 냉전의 전개가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상세하게 언급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중소동맹조약이 된 것이二月 보름께 일인데 녀달만에 겨우 그 대항책으로 대일단독강화(早期講和)인지를 서둘르는것쯤이니 남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일본을 경제부흥을 시켜주고 재무장을 시켜서 방공

(防共)의 방파제(防波堤)로 내세우자는것이 틀렸다는것이 아니요[,]<sup>12</sup> 내일의 일본이 또다시 우리집 뒷문을 노리는 이리(狼)가 되고 안되는것은 차치막론하고라도 당장 앞문턱에 입을 벌리고 앉았는 호랑이는 누구더러 무얼로 막아내라는 말인지, 그야 우리가 막아 내야는 하겠지만 적어두 소련이 저놈에게 주니만치나 중화기라든지 비행기를 주고서 씨름을 하라야 말이 되죠. …… 철의 장막이라하기로 금성탕지(金城湯池)가 아니거던 전연 무장비[sic]상태대로 내 버려두고 가버렸으니 별거숭이 환도 찬 셈으루 총자루나 하나 메고 멀거니三八선을 바라보고 쫓는 감시병과 똑같은 신센데 그래 일본무장부터 시켜야 하겠다니 정세를 알고 하는 수작인지 더 답답한 노릇이 어디있습니까?」

대개는 공개장의 논지를 되풀이하는 것이지만은 열렬히 입힘차게 느러놓는 것이었다. 대일강화조약 체결의 임무를 맡은 「딜레쓰」를 뒤 따라서 이튿날 六[월] 十八일에는 「쫘스」 국방장관과 「부랏드레」 합동참모본부의 장의 일행이 동경에 날라와서 『맥아더』 최고사령관과 극동의 평화대책을 상의하였다는 것이다. 이회의에서 한국문제는 과연 어떠한 결론을 얻었는지 한국원조의 구체안을 시급히 세우고 실행하라는 것이 공개장의 결론이었던 것이다.

「여부가 있나! 그나마 한국은 작전상 이용가치가 없느니 방위선에서 제외하느니 하고 포기한듯이 언명을하여 놓았으니 점점더 딱한사정이 아닌가.」

「그러게 말해요. 저놈들 귀에 솔깃한소리만 들려주면서 원조는 한다고 방송만하니 저놈들만 때만났다구 춤을 출거요. 원조를 받아 이쪽 장비가 완성되기전에 거사를하려 서두를거 아닙니까? (하략)」<sup>13</sup>

12 이 대목은 『자유세계』에 연재될 때 ‘틀렸다는 것이 아니요?’였으나 저자수정본에서 ‘틀렸다는 것이 아니요.’로 고쳐져 있다.

13 염상섭(1952. 4), 「홍염」, 『자유세계』, pp. 213-214.



위 인용문은 『중앙시론』의 사장 박영선과 편집장 이종무가 나누는 대화의 일부이다. 1950년 6월 말은 중소조약(1950. 2)이 체결된 이후 위협을 느낀 미국이 일본과의 평화조약을 준비하면서 반공전선을 강화하려던 시기이다. 실제로 1951년 9월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일본에게 있어 전범국으로서의 책임을 뒤로 하고 동아시아 반공전선 수호의 의무를 우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조약 체결 당시 남한과 북한이 모두 서명 국가에서 배제된 것은 미국-일본-한국의 불평등한 위계가 냉전 체제하에서 다시 세워지게 된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된다.<sup>14</sup>

『홍염』·『사선』은 대일강화조약 이후 진공상태가 될 남한을 염려하며 공개장을 쓴 『중앙시론』의 사장 박영선을 통해 이러한 냉전기 미국의 반공 전략을 명료하게 짚는다. 대일강화조약은 중소조약에 대한 대응으로서 서둘러진 것이며, 특히 1950년 1월 애치슨 선언으로 한국이 동북아시아 방위선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미국이 일본의 재무장에만 신경을 쓰니 북한이 남침을 시도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이것은 이 작품에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화한다기보다 도리어 미국에 대한 은근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북한을 비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대일조약이 아닌 중소조약에 초점을 맞추고 “소련이 저놈에게 주니만치”의 심각성을 부각하는 것

14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냉전체제 및 한미일 위계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관해서는 류지아(2010), 「한국전쟁 전후, 대일강화조약 논의에 의한 아시아 내에서 일본의 안보와 위상」, 『한일민족문제연구』 18, 한일민족문제학회; 신윝희(2020),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한국과국제정치』 36(3),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등을 참조.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당시 한국이 배제된 외재적·내재적 원인에 대해서는 각각 김태기(1999), 「1950년대 초 미국의 대한(對韓) 외교정책」, 『한국정치학회보』 33(1), 한국정치학회; 유의상(2015),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회의와 한국의 참가문제」, 『사림』 53, 수선사학회 등을 참조. 한편 한미일 외 다른 국가들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는 김체형(2016),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법적체제와 주요국가의 입장분석」, 『인문사회과학연구』 17(2),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를, 샌프란시스코 조약 비(非)서명국들이 추후 일본과의 수교를 통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규범을 유지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김승배(2020),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동북아시아 비(非)서명국들」, 『일본비평』 22,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를 참조.

이 더 자연스럽게 때문이다. 그러나 『홍염』·『사선』에서는 미국의 행보가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하게 깨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북한에 대한 적개심보다 전면화되어 있다.

박영선이 미국의 행보를 보며 표출하는 위기감이나 불만은 염상섭 그 자신이 해방기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는 1948년 1월 「UN과 조선문제」라는 글에서 “소련을 제외하고 대일강화회의가 성립되고 조약이 체결된다기로 조선으로서나 세계동향으로서나 환영할 바 아님은 물론이다”<sup>15</sup>라면서 대일강화조약이 냉전 구도의 정치적 갈등을 심화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기실 염상섭은 미군정기부터 ‘실권자이면서 방관자인’ 미국을 비판하고 있었다. 미군정기 조선의 극심한 생활난을 문제시하는 한 글에서 그는 “군정의 완전한 이양”이 궁극적 목적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도대체 군정은 어느 한도 이상으로는 너희들이 해볼 대로 해보라는 듯이 관망적·비관적 태도인 듯한 점이 없지 않으니 (...) 실권을 잡고 지도적 책임이 있는 바에는 그러한 겸양이 도리어 군정의 실패를 자초하는 결과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한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권력을 지녔으면서도 정작 실질적인 남한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험대를 주시·관찰하는 과학자의 눈으로 냉연히 바라보는 그런 태도와 심경”을 보인다는 것이다.<sup>16</sup> 해방기 염상섭의 이와 같은 문제의식이 고스란히 박영선에게 전달된 셈이다.<sup>17</sup>

15 염상섭(2014), 「UN과 조선문제」, 『염상섭 문장 전집 III』(한기형·이혜령 편), 소명출판, p. 68.

16 염상섭(2014), pp. 35, 37, 38.

17 이러한 맥락에서, 그간 박영선을 ‘보수우익언론인’으로 규정해온 선행연구들의 시각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텍스트의 표면에 내세워진 박영선의 정체성은 “좌익을 호들갑스럽게 쳐오던 중앙시론 사장”[염상섭(1952. 10), 「홍염」, 『자유세계』, p. 261]이자 “빨갱이가 노리는 한 사람”[염상섭(1952. 8·9), 「홍염」, 『자유세계』, p. 210]이지만, 실제 박영선의 발언들을 들여다보면 그의 현실감각은 단순한 반공주의자의 그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박영선에게 보수우익으로서의 면모가 있다면 그것은 대미나 대북 의식에서가 아니라

『홍염』·『사선』 연작이 청년·자식 세대가 아닌 중년·부모 세대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은 이러한 냉전에 대한 시각을 보다 잘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공산주의자 상근과 국군 중위 광근, 광근의 약혼자 경애와 공산진영의 스파이 난이, 상근의 편에 가담하는 윤식 등의 청년들은 진영에 상관없이 모두 한국전쟁으로 인해 핵심적인 속성이 규정되거나 변화한 인물들이다. 광근의 경우 그야말로 생사여부가 한국전쟁에 달려 있고, 상근과 윤식은 공통적으로 한국전쟁을 통과하며 ‘전과 다른 사람’이 된 것으로 묘사된다. “걸음[걸이]도 새로 훈련을 받았는지 **전에 보지못하던** 걸음새였다”<sup>18</sup>거나 “전에는 짹짹하게 이야기도 곧잘하고 명랑한편이었는데 그것도 빨갱이의 물이 들어서 그런지 **사변이후로 성질이 별안간 변한듯**”<sup>19</sup>하다는 것이다. 전쟁으로 인한 청년들의 변화는 『홍염』에서 『사선』으로 건너오는 동안 점차 심화되어, 『사선』에서는 상근과 윤식에 대한 가족들의 의심과 두려움이 서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이렇게 한국전쟁에 지대한 영향을 받은 만큼 이들 청년의 시야는 한국전쟁의 틀에 묶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군의 출정 장면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경애는 “애인이 그리워 우는 것도 아니요 나라를 걱정해서도 아니었다. 다만 어쩐지 대견하여 보이고 감격하였다”<sup>20</sup>고 서술되는데, 이는 곧 한국전쟁에 사로잡힌 청년들이 그 비장하고

---

오히려 대일 의식에서이다. 앞서 인용한 박영선과 이종무의 대화 장면에서 일본에 대한 비판의식은 상대적으로 가볍다. 미국의 경제원조를 통해 제기한 일본이 훗날 한국을 다시 침략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되지만 그 이상의 언급이 이어지지는 않으며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서도 거론되지 않는다. 박영선은 해방 직후 적산가옥이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는 인물이다. 책방을 운영하며 성장해온 박영선의 내력이 언급되기는 하나 다소 의심되는 그의 친일적인 면모는 완전히 침묵되어 있다.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공산주의자 아들 상근이 박영선에게 자수만이 살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그가 친일부역자로 몰리기 쉽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박영선은 자신에게 죄가 없다며 ‘빨갱이’ 자식만 탓하는 모습을 보인다.

18 염상섭(1956. 10), 「사선」, 『자유세계』, p. 269. 강조는 인용자.

19 염상섭(1957. 3·4), 「사선」, 『자유세계』, p. 110. 강조는 인용자.

20 염상섭(1952. 8·9), p. 206.

낭만적인 열정에 비해 국가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은 부족하다는 작가의 논평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부터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던 박영선이라는 인물은 한국전쟁 이외의 이야기를 하기에 용이하다. 요컨대 염상섭에게는 한국전쟁에만 관여할 청년들이 아니라 냉전에도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필요했다.

한편 『홍염』·『사선』의 청년 세대가 공산주의진영과 자본주의진영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 역시 주목을 요한다. 반재영은 한국전쟁기 남한문학 속 ‘적(敵/赤)=청년’의 형상이 냉전적 인식론과 통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냉전적 인식론의 핵심 중 하나는 소련이 아닌 곳에서 전개되는 각국의 공산주의 운동을 단지 사주받은 것으로 치부하고 그 토착성과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1950년대 남한의 전쟁소설은 1920년대부터 이어져 온 한국사회주의운동의 역사는 소거한 채 치기 어린 청년 공산주의자들만을 적으로 재현한다. 그리고 적(敵/赤)=청년이라는 타자를 통해 남한의 지식인들은 스스로를 지혜롭고 성숙한 노장으로 구성한다.<sup>21</sup>

『홍염』·『사선』의 공산주의자 상근 역시 어리석은 젊은이로 형상화되는 것이 사실이며, 선옥이 전쟁을 “전쟁이라기 보다도 아이들의 병정재끼같이 생각”<sup>22</sup>하는 것도 유사한 맥락 위에 있다. 그러나 『홍염』·『사선』은 국군인 광근을 ‘물정을 모르는 어린애’로 형상화하는 지점에서 ‘자본진영=성숙’대 ‘공산진영=미성숙’이라는 전형적 구도를 벗어난다. 상근보다 훨씬 훨씬한 미남자로 묘사되는 광근은 얼핏 보기에 상근과 대조되는 인물인 듯하지만, 기실 이 작품에서 광근이 엮힌 장면은 전쟁이 터졌을 때 얼마나 남한이 뒤늦게 혹은 무책임하게 대응했는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광근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에 휴가를 나와 경애와의 데이트를 앞두고 있다가 별안간 비상소집을 당해 허둥지둥 집을 나선다. 박영선은 “군인이면서도 감감

21 반재영(2021), 「붉은 청년과 반공의 교양」, 『한국문학연구』 65, 한국문학연구소.

22 염상섭(1952. 10), p. 225.

히 영문도 모르고 있는 아들에게 무슨죄나 있는듯이 역정을 내”고, 광근도 “군인된 자기로서 적이 쳐들어오도록 갑갑히 모르고 있었다는것이 무안쩍어서”<sup>23</sup> 늘 있는 북한인의 도발일 것이라고 변명한다. 물론 개인의 입장에서 전쟁 발발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광근의 다급한 참전 장면은 ‘국군의 용진으로 적군을 격퇴했으니 안심하라’는 헌병대와 경찰청의 거짓 포고문 장면과 곧바로 대비되면서 작가의 냉소적인 눈길을 느끼게 한다. 실제 출정 상황과 정부의 선전 사이의 균열은 광근의 애인 경애에게조차 의아함과 무안함으로 감지된다.<sup>24</sup> 이 외에도 전쟁이 터졌는데도 신임 국장의 환영회를 나간 남한의 공직자들이나,<sup>25</sup> 정부의 잘못된 선전 때문에 더 엉망이 된 피난길의 모습은<sup>26</sup> 공통적으로 한국전쟁 초기 남한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한다. 이렇게 볼 때 국군 광근의 어리숙한 이미지는 자본주의진영의 반공 선무공작을 해체하는 전략이 되기도 한다. 『홍염』이 염상섭이 해군 장교로 복무하던 시절에 연재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국군을 탈신성화하고 남한정부의 허위적 선전을 폭로하는 이러한 서술은 결코 가볍지 않다.

23 염상섭(1952. 5), 「홍염」, 『자유세계』, p. 209.

24 “국군이 서울안에 얼마나 있길래, 아직도 덜 나가고 있는가? 광근이도 그속에 남아있다면 다시 한번 만날수 있겠다는 생각에 반갑기도하나, 한편으로는 무엇하느라고 이때껏 꾸물꾸물하고 있었던가하는 의아한 생각도 들어서, / 「아침내 쏟아져 나가더라는데, 아직도 덜 나가기 남아 있었군요?」 하고 물으니까 / 「아, 인제야 대부대가 본격적으루 동원돼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나간것은 어제 토요일에 외출 안하구 남았던 잔류부대 였겠쥬.」 하고 태연무심히 설명을한다. 경애는 잠자코 말했다. 광근이부텨 열시가 넘어서 비상소집령을 받고 들어갔다지 않는가?」 [염상섭(1952. 8·9), p. 205. 강조는 인용자]

25 “난리가 일변 쳐들어 온다는데 차려놓은 음식이 아깝고 기위 [별인] 잔치니 그대로 나갔다는 「그분들이 더 딱한 사람들이라고 호남이는 속으로 혀를 찼다. / 이집 단골인 XX국의 간부들이 신임 국장의 환영회를 정릉안 막[바지], 북한산 기슭의 수석이 좋은 [놀이]터에 배풀고 주말휴양(週末休養)을 겸하여 하루의 청유(淸遊)를 즐기자는 것인데,」 [염상섭(1952. 8·9), p. 201. 강조는 인용자]

26 “피난민이 한때 뜬하였던 까닭이 이제야 짐작 났다. 의정부가 탈환되었으니 안심하고 있다는 선전 바람에 주춤하였던 사람들이 다급하여 뛰어나와보니 큰길은 막히고 능안 쪽으로 돌아오는 동안에 영문 모르고 들어 앉았던 사람들까지 따라 나서게 돼서 이렇게 [불은] 모양이다.” [염상섭(1952. 10), pp. 217-218. 강조는 인용자]

공산주의가 젊은 청년들을 휩쓴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대응하는 남한의 방식이 현명하지도 않았다고 염상섭은 지적하고 있다.

전쟁이 시작되면 적(북한과 공산진영)은 명백히 보인다. 염상섭이 전쟁이 시작되기 이전에 『홍염』·『사선』의 서사를 출발시킨 것은 전장에서 가시적인 적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킨 비가시적인 책임자들(미국과 남한정부)도 시야에 두기 위해서였다. 냉전기 미국의 반공 전략이 한반도에 전쟁을 가져올 것이라는 박영선의 우려는 금세 현실이 되었으며, 미국과 유엔의 원조를 기다리다가 전쟁이 터지자 헛된 선전을 내보내며 수뇌부만 도피한 남한 정부는 사태의 방관자였다. 한국전쟁의 전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홍염』·『사선』의 재구성은 곧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된 계기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 3. 1948, 1950, 1952의 중첩과 중간과의 행로

『홍염』·『사선』 연작에서 드러나는 염상섭의 시선이 한 편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에 닿아 있다면, 다른 한 편으로는 5.30 선거를 둘러싼 남한 내부의 정치에 닿아 있다. 안서현은 『무풍대』에서 염상섭이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5.10 선거)에 출마한 태영이라는 인물을 통해 선거 전후의 정계의 기회주의를 비판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sup>27</sup> 『홍염』·『사선』은 5.10 선거로부터 2년이 지난 후인 제2대 국회의원 선거(5.30 선거)를 통해 염상섭의 정치적 입장을 암시한다.

이 진공상태를 저놈들은 [살살]이 뻘히 들여다보구 앉았는데 우리가 저놈들이 지금 뭘하구 있는지 뻘새나 말할수 있습니까, 남북협상에 갔다가 온

27 안서현(2013), pp. 172-178.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야 복면을 시켜 가지구 조리를 돌리는대로 끌려만 다니다가 온 셈이니 무어 하나 정세를 관측한 자료를 가져온게 있기에 말이죠. 무슨 통일전선이니 난장이니 또 다시 개수작을 끄내 놓고서는 이주하 김삼룡과 조만식선생을 바꾸자고 짹짹거리는것도 무슨패를 쓰는 것일지 누가 압니까?<sup>28</sup>

위 인용문은 앞 장에서 보았던 박영선과 이종무의 대화의 일부이다. 작중 인물들의 현재가 1950년 6월 말임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면, 여기에서 별안간 남북회담이 거론되는 것은 다소 돌출적이다. 염상섭은 1950년 한국전쟁 직전의 현재에서 출발해, 1948년 남북연석회의와 남북요인회담으로 순식간에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1950년 북한이 김삼룡·이주하와 조만식의 교환을 위한 남북협상을 제안한 상황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1948년과 1950년의 사건들이 이렇게 긴밀히 함께 제시되는 것은 우연의 소산만은 아니다. 이 시간들의 겹침이 보여주는 염상섭의 내면은 무엇인가?

선행연구들이 잘 정리하고 있듯 1948년은 염상섭이 단독선거에 반대하고 남북협상을 지지하는 좌우합작파의 입장에서 여러 정치적 활동을 보인 시기이다. 이는 북한에서 진행된 남북회담과 동시기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1948년 4월 14일 염상섭이 참여한 문화인 108인의 남북회담지지 성명은 북행을 고민하던 김규식이 하지 사령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한으로 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당대 남한 언론에서 남북회담은 「남북협상 공산파회담에 불과 민중은 현혹치 마라」(『동아일보』, 1948. 5. 4.), 「남북협상의 비자주성」(『동아일보』, 1948. 3. 30.) 등과 같이 반공주의적 시각에서 보도되는 것이 당연했는데, 염상섭은 남북요인회담이 진행되던 바로 이 시기(4월 27~30일)에 『신민일보』 필화사건을 겪고 있었다. 그 뒤로도 염상섭은 남조선 인민대표자대회(8월 21~25일)에 참가할 대의원 지하선거(7월 15일)에

28 염상섭(1952. 4), p. 213. 강조는 인용자.

이름을 올리고, 7월 26일 미소 양군의 철수를 통한 통일자주독립을 주장하는 문화인 330인의 성명에 참여하는 등 꾀꾀하게 통일독립노선을 걸었다.<sup>29</sup>

『홍염』의 위 대목은 바로 이 시기에 염상섭이 가졌을 기대와 좌절감을 우회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남북협상 관련자들이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종무의 발언은 그 당시 작가 자신이 지향했던 좌우합작 통일론을 환기하는 동시에, 그것이 실패로 끝난 데 대한 답답한 심정을 느끼게 한다. 통일정부가 세워지기는커녕 통일정부노선을 주장한 김구와 김규식 등은 그 이후 남한의 정치에서 배제된 것이다. 그 뒤 염상섭은 1948년의 통일론이라는 기표를 징검다리 삼아, 1950년 북한이 다시금 통일전선을 거론하며 이주하·김삼룡과 조만식의 교환을 제의했던 일로 초점을 옮긴다. 작중 인물들은 이 새로운 통일 이슈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1952년을 살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통일의 실패가 환기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독자의 입장에서서는 당시 남한사회가 조만식의 무사 귀환에 대해 큰 관심과 기대를 가졌었던 정황과 더불어,<sup>30</sup> 결국 이 교환이 성사되지 않은 채 전쟁이 터졌다는 사실이 동시에 상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홍염』은 1950년의 인물들이 1948년을 돌아보도록, 그리고 1952년의 독자들이 1948년과 1950년을 돌아보도록 만들면서 좌우합작 통일론이라는 키워드를 수면 위로 올린다. 기왕의 연구에서는 염상섭이 단선과 보도연맹가입을 분기점으로 반공주의자로 몰리지 않게끔 자기검열을

29 1948년 염상섭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는 김재용(1999), pp. 197-199; 이봉범(2008), 「단정수립 후 전향의 문화사적 연구」, 『대동문화연구』 6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pp. 232-234; 이해령(2012), 「사상지리의 형성으로서의 냉전과 검열」, 『상허학보』 34, 상허학회, pp. 149-151; 안서현(2013), p. 162 및 「백팔 문화인도 단연 쫓기」, 『우리신문』, 1948. 4. 29; 「양군 철퇴의 일로만이 각축 반발 시의를 일소하는 정로」, 『조선중앙일보』, 1948. 7. 27 등을 참조.

30 「조만식씨 도라오나!」, 『조선일보』, 1950. 6. 17; 「조만식씨 월남 환영준비」, 『동아일보』, 1950. 6. 19; 「조만식선생 과연 도라오려나?」, 『경향신문』, 1950. 6. 20.



해나간 과정이 주목되었지만,<sup>31</sup> 후일담 형식으로 듣는 해방기의 사정은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중간파로서의 염상섭의 심경을 전해준다.

나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독해하자면 염상섭은 이러한 중간파의 행로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듯 보이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박영선과 그의 사위 장윤식이 5.30 선거에 대해 나누는 대화가 주목된다.

「어떤모양야? 요새 정계동향은…」

사위와는 터놓고 대작을하며, 영감은 노상 어린 이 정치기자를 취재(取材)나 하듯이 말을 시키는 것이었다.

「제가 뭐 압니까마는, 五·三○선거후의 세력분야가 분명해지구 정계가 안정이 되려면 한참 걸릴겁니다. 무소속인지 중간파인지가 새분야를 찾아 들어가서 이합취산이 일단락 저야하겠는데 백년하청을 기다리기는 역시 일반이죠.」

「그렇기야하지. 그래 C씨의 태도는 어떤모양인구? 부의장설은 유력한가?」

「종래의 인상을 백팔십도로 일전시킬만큼 태도를 대담히 명백하게 하지 않는한, 누구보다도 어려운처지겠죠. 정치적생명을 살리고 죽이는것이 이 일거에 있다고 하겠는데요…」

「응, 그는 그래…」

사위가 나이 보아서 맹문이가 아니라고, 영감은 역시 귀엽게 생각하였다.<sup>32</sup>

한국의 선거 역사에서 5.10 선거와 5.30 선거는 종종 비교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단독선거에 반대하던 좌익·중도정당들이 선거를 보이콧한 상태

31 각주 11번 참고.

32 염상섭(1952. 5), p. 198.

에서 치러진 5.10 선거는 사실상 한민당과 이승만계 세력이 미군정의 비호 하에 신임투표를 진행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평가된다. 반면 5.30 선거는 무소속 후보가 대거 당선되어 총 의석의 60%(210석 중 126석)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좀 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진다. 전통적인 해석은 5.10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좌익·중도세력이 다시 경기에 참가한 것이 5.30 선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 국가보안법에 의해 좌익정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 다수가 불법화되면서 이 세력들이 무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고, 따라서 무소속 세력의 확대는 곧 이승만 정권과 분단 심화에 대한 민중의 반감을 수치로 보여준다고 보는 것이다.<sup>33</sup> 이러한 전통적 해석은 진보세력의 행보에 대한 미화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무소속 세력 각각의 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5.30 선거를 통해 무소속 세력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다는 객관적인 사실과는 별개로 당시의 정치적 세력 분포에 대한 시각은 연구자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sup>34</sup>

『홍염』의 위 인용문에서 “五·三〇선거후의 세력분야가 분명해지구 정계가 안정이 되려면 한참 걸릴” 것이라고 한 것은 선거 당시에도 정치적 진영도가 명확하지 않아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했음을 알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무소속인지 중간파인지가 새분야를 찾아들어가서 이합취산이 일 단락 저야하겠”다는 장윤식의 발언와 이에 동조하는 박영선의 모습은 주목을 요한다. 무소속 세력의 성격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염상섭이 장윤식을 통해 “무소속인지 중간파인지가”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가 ‘무소속 곧 중간파’를 상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중

33 오유석(1992), 「1950년 5.30총선」, 『역사비평』 봄호; 강정구(1993), 「5·10 선거와 5·30 선거의 비교연구」, 『한국과 국제정치』 9(1),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강정구(1994), 「전상인의 반론에 대한 답론」, 『한국과 국제정치』 10(1),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34 전상인(1994), 「강정구의 “5·10 선거와 5·30 선거의 비교연구”에 대한 반론」, 『한국과 국제정치』 10(1),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김일영(1995), 「농지개혁, 5·30선거, 그리고 한국전쟁」, 『한국과 국제정치』 11(1),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과들이 새 분야를 잘 찾아 들어가는 것이 정계 안정의 관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박영선이 장윤식에게 묻는 “C씨”란 죽산(竹山) 조봉암(曹奉岩, 1899~1959)을 가리킨다. 조봉암이 종래의 인상을 일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것은 그가 1946년 공식적으로 사상전향을 한 전(前)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일 터이다. 인물들의 우려 섞인 호기심에 걸맞게 실제로 조봉암은 1950년 국회 부의장에 선출되어 이후 4년간 부의장직을 지냈다.

염상섭이 5.30 선거를 둘러싼 수많은 이슈 가운데서 유독 조봉암을 호명한 것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다. 조봉암은 염상섭과 마찬가지로 해방기에 좌우합작 평화통일을 주장한 인물이다. 그는 1947년 이극로 등과 함께 민주주의독립전선을 결성해 정치위원 겸 선전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중간과 세력을 모으는 데 힘썼다. 민주주의독립전선은 미소공위에 대처하기 위해 미소공위대책각정당사회단체협의회를 조직하면서 중간과의 핵심세력으로 부상했다.<sup>35</sup> 이러한 해방기 중간과의 통일운동은 실패로 끝나지만, 평화통일담론은 한국전쟁 이후까지 조봉암과 진보당에 의해 명맥을 이어갔다. 한국전쟁을 겪으며 조봉암은 반전(反戰) 평화통일에 대한 신념을 더욱 강화했다. 그는 한국전쟁은 무력에 의한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며, 통일은 단일민족이라는 당위성이 아니라 반전사상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다.<sup>36</sup> 1959년 간첩 혐의로 사형당하기 전까지 조봉암과 진보당은 평화통일론을 일관되게 추구하고, 이것은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에 압도되어있던 남한 사회에서 거의 유일한 대안적 목소리였다는 점에서 오늘날 높이 평가된다.<sup>37</sup>

35 노경채(2010), 「조봉암·진보당·사회민주주의」,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pp. 445-446.

36 김태우(2017), 「조봉암의 평화사상」, 『통일과 평화』 9(1),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pp. 121-122.

37 정진아(2009), 「조봉암의 평화통일론 재검토」, 『통일인문학』 48,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p. 75; 김태우(2017), pp. 100-101; 노경채(2010), p. 456.

앞서 남북협상에 대한 박영선과 이종무의 대화가 해방기 통일운동의 실패에 대한 안타까움 섞인 회고였다면, 조봉암에 대한 언급은 평화통일운동의 미래에 대한 조심스러운 기대로 간주해볼 수 있다. 김구·김규식이 대표하는 해방기 좌우합작파가 대한민국 수립 이후 정치적 생명을 잃은 데 반해 조봉암은 남한 사회 속에서 살아남은 중간파였다. 전술했듯 5.10 선거 당시 대부분의 좌익·중도세력은 선거를 보이콧했지만 조봉암은 단선 참가를 주장하는 입장이었다. 그는 좌익·중도세력의 큰 비난을 무릅쓰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었고 1950년 5.30 선거에서도 재선된다.<sup>38</sup> 제헌국회에서 조봉암은 무소속구락부를 발족시키는 데 앞장섰고,<sup>39</sup> 그의 중도노선은 이승만 정권이 극우반공적 경향으로 극단화되는 것에 대한 최소한도의 제동장치였다.<sup>40</sup>

‘살아남은 중간파’로서의 조봉암의 존재는 비단 1950년 인물들의 현재만이 아니라 1952년 작가의 현재에도 중요했다. 『홍염』에서 5.30 선거와 조봉암에 대해 박영선과 장윤식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1952년 5월 연재분에 해당한다. 작가의 현재에 눈을 돌리면 이 시기는 1952년 8월에 있을 제2대 대통령의 선거유세가 한창이던 시기였다. 조봉암은 여기에서도 유엔총회 감시 하 평화통일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결과적으로 이 선거는 부산정치파동과 발췌개헌을 통한 이승만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조봉암은 점차 대표적인 진보 인사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조봉암은 30%에 가까운 득표를 하면서 파란을 일으키는데, 이 대선은 조봉암의 지속적인 평화통일담론이 대중적인 주목을 받게 된 시기로 일컬

38 선거 유세 당시 조봉암과 경합한 김석기는 조봉암을 공산주의자로 몰아세우며 좌우 이념대립을 전략적으로 이용했지만 조봉암은 양군철폐와 평화통일을 호소하며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었다[이현주(2001), 「해방 후 조봉암의 정치활동과 제헌의회 선거」, 『황해문화』 30, 새얼문화재단, pp. 156-157, 159].

39 노경채(2010), p. 447.

40 김태우(2017), p. 112.

어진다.<sup>41</sup>

해방기 중간파의 상당수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배제된 1950년대 남한 사회에서, 조봉암의 일관된 평화통일론은 염상섭이 해방기에 지향했던 바를 조금이나마 유지하게 해줄 유일한 희망이었을 것이다. 『홍염』의 박영선과 장윤식이 1950년 5.30 이후의 중간파와 조봉암에 주목하며 남한 정치의 새로운 바람을 기대했다면 1952년 염상섭은 제2대선을 앞두고 이 인물들의 바람을 연장하고 있는 것이다. 전술했듯 기존의 연구들은 염상섭이 단독 정부 수립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중간파로서의 입장을 저버렸다고 판단했지만, 이 장에서 살펴본 장면들은 염상섭의 시야가 결코 축소되지 않았음을, 여전히 통일을 전제로 남북한의 관계를 주시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4. 정치의식과 연애서사의 중첩과 그 너머

냉전과 중간파에 대한 인식이 『홍염』·『사선』의 시공간을 구축하는 바탕에 해당한다면, 그 바탕 위에서 표면화되는 것은 두 중년 여성과 한 청년 남성의 연애 서사이다. 이는 『홍염』·『사선』이 통속소설로 폄하되거나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만든 근본 원인이다. 냉전 초기 한국사회를 바라보는 염상섭의 시선은 이러한 연애 서사에 어떻게 닿아 있는 것일까?

『홍염』·『사선』의 연애 서사가 작가의 현실 인식과 맞물리는 지점은 『홍염』의 말미에 등장하는 다음 장면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종무는 술잔을 비어주면서,

「그런데 대관절 이책임은 누가 져야합니까?」

41 강우진(2017),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조봉암의 약진요인에 대한 분석」, 『현대정치연구』 10(1),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p. 32; 정진아(2009), pp. 76-77; 김태우(2017), p. 120.

하고 말을 돌린다.

「책임? 질사람이 지겠지.」

영감이 핫김에 혀를 차려니까, 소옥이가 받은술을 벌주 켜듯이 쪽 마시고 나서

**「뭐? 책임야, 영감 마누라 다 있지.」**

하고 가만히 구경만하고 앉았는데 선옥이를 힐끗 건너다 본다. 선옥이는 불뚱이 자기에게 뛰어 오다가 싫어서 짙끔하였다.

「이건 또 무슨 객설야?」

취원이 나무래니까

**「뭐 너두 책임이 있지.」**

하고 소옥이는 여전히 탄청을한다. 짓궂게 강주정을 하는 눈치가 이상해서, 선옥이는 어서 자리를 떠야 하겠다고 엉땡이가 들먹어렸다.

**「그럴법이 있나요 어린것들이 불쌍해요. 죄없이 걸려나가는 저 어린것들이!」**

이종무도 빈속에 독한술이 들어가서 자위가 풀린 눈을 홉뜨며 소리를 버럭 지른다.

**「여부가 있나! 자식들은 저지경이 되구!……」**

소옥이의 맞장구에 선옥이는 저입에서 또 무슨소리가 나올까 무서워서 일어 서려는데, 참외를 벗겨 들여왔다.<sup>42</sup>

위 대목은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의 눈을 피해 현저동 최호남의 이모네로 피신해 있는 박영선에게 여러 인물들이 인사를 오면서 술자리가 벌어진 장면이다. 이종무는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겠느냐고 묻고 박영선은 체념 섞인 분통을 터뜨린다. 박영선과 이종무가 묻는 책임은 물론 한국 전쟁에 대한 것으로, 앞서 살펴본 전쟁 배후의 책임자들을 다시금 상기시키

42 엄상섭(1953. 1·2), 「홍염」, 『자유세계』, p. 241. 강조는 인용자.

는 대목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종무의 물음에 대한 소옥의 대답이다. 소옥은 ‘영감과 마누라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대화의 주제를 ‘전쟁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부적절한 연애에 대한 책임’으로 은근슬쩍 전환한 것이다. 소옥은 선옥과 호남, 그리고 취원까지(“뭘 너두 책임이 있지.”) 삼각관계의 당사자들을 고루 거론하며 이 연애 관계로 인해 두 가정이 파탄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소옥의 의중을 알아차린 선옥은 뜨끔하며 자리를 뜰 기회를 엿본다. 반면 인물들의 속사정을 알지 못하는 이종무는 그저 소옥이 전쟁의 책임은 기성세대에게 있다고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종무가 소옥에게 동조하며 기성세대 때문에 청년들이 전쟁터로 끌려나가고 있다고 언급하자, 소옥은 “여부가 있나! 자식들은 저지경이 되구!”라고 답한다. 이는 짓궂게도 또 한 번 이종무에게 대답하는 척하며 삼각관계 당사자들을 꼬집는 것이다. 자식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전쟁에 생사를 걸고 있는데 부모들은 사적 욕망에 사로잡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경수는 염상섭의 소설에서 남녀의 결연담이 작가의 현실 이해를 보여주는 일관된 비유라고 지적한 바 있다.<sup>43</sup> 『홍염』·『사선』 연작에서도 염상섭은 인물들 간의 정보 차이를 이용해 전쟁에 대한 책임론과 가정에 대한 책임론을 의도적으로 겹쳐두었다. 『홍염』·『사선』에서 염상섭이 주시하는 것이 전장에서의 적이 아니라 전쟁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지지 않는 배후의 방관자적 존재들이라고 할 때, 서사의 표면에서 그 방관자는 ‘연애하는 영감/마누라’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셈이다. 남한 정부와 미국이 한반도를 분열시킨 배후의 책임자이듯, 연애하는 부모들은 가정을 분열시킨 배후의 책임자이다. 이 둘은 결과적으로 청년(자식)들을 전장에 서게 한다는 점에서 상통한다.

문제는 전쟁의 책임자와 가정의 책임자를 견주어보게 하는 염상섭의 전략이 그 의도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여성 인물의 성적 방종에 대한 비

43 김경수(1999), pp. 258-259.

난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이다. 특히나 포탄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연애를 하는 것은 선옥, 호남, 취원이 모두 같음에도, 작품의 비판적 시선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저버리는 선옥에게로 보다 치중된다. 선옥은 “이십년 길러낸 자식보다도 어쁘게 만난 남자에게 더 마음이 써우는 것이 죄로 같것 같아서 괴로”워하다가도 “그러나 자식을 버리고 나서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sup>44</sup>하고 스스로의 욕망을 정당화하며, 『홍염』에서 『사선』에 이르는 동안 호남과의 연애를 점점 더 대담하게 이어나간다. 이러한 선옥의 모습은 작가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담지하고 있는 인물인 박영선이 맞이하는 상황과 대조된다. 전쟁이 발발한 뒤로 박영선은 이곳저곳 피난처를 옮겨 다니며 숨을 죽여야 했고, 특히 『사선』에서는 공산주의자로 귀환한 장남 상근으로부터 자수서 제출을 종용받으면서 가부장으로서의 권능을 상실해가기 때문이다. 냉전기 국내외의 정세를 예리하게 주시하는 지식인이자 방정한 품성과 부성애로 전통적인 가족관계를 통할하기에도 적합한 인물형<sup>45</sup>인 박영선은 시간이 흐를수록 궁지에 몰리고, 반면 철없는 연애에 빠진 듯 보이는 이 선옥은 점점 더 왕성한 활동력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홍염』에서 『사선』으로의 이와 같은 전개가 초반에 박영선이 보여주었던 통찰력을 무용한 것으로 만들거나 작품의 “구성상의 파탄”<sup>46</sup>을 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한반도의 청년들을 전쟁터로 보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질문한 것이 『홍염』이었다면, 『사선』은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남한 사회가 어떻게 분열되어갔는가를 보여주는 데 무

44 염상섭(1952. 12), p. 259.

45 박영선은 20대에 취원을 처음 알게 되지만 이 시기에 친구의 돈으로 서점을 내어 일을 시작한 이후로는 화류계에 발을 들인 적이 없는 것으로 서술된다. 취원과의 연은 이후로도 오래 이어져 간혹 오해를 사기도 하나 “실상은 아무 까닭도 없이 깨끗한 우정(友情)”[염상섭(1952. 3), p. 205]이다. 또한 사업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에도 자식들에게 상당히 마음을 쓰는 다정한 부친으로 설정되어 있다. 염상섭의 소설에서 보기 드문 긍정적인 중년 남성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46 배경렬(2007), p. 250.



게를 둔다고 할 수 있다. 상근, 광근, 윤식, 경애 등의 청년/자식들은 『홍염』에서 『사선』으로 이행하는 동안 점차 한국전쟁의 틀 속에서만 적군과 아군을 판별하게 되며, 이는 박영선으로 상징되는 냉전질서나 평화통일의 발화주체를 어디에도 위치할 수 없게 만든다. 동시에 『홍염』에서 『사선』으로 건너오는 시간은 청년/자식들이 전장에 나가 있는 동안 사태 배후의 방관자들이 여전히 합당한 책임을 지지 않고 더욱 한반도/가정의 분열을 가속화한 시간으로 제시된다. 전쟁의 책임자에 비유되는 가정(분열)의 책임자들의 연애 서사가 『홍염』에서 『사선』에 이르는 동안 점점 더 부각되는 것은 이때문이다. 다만 이때 연애하는 영감·마누라들 중에서도 유독 어머니 선옥에 비판의 시선이 치중되는 것은 서사 전략의 필요에서가 아니라, 이를테면 미국·남한정부의 가장 적절한 비유 대상이 선옥이어서가 아니라 염상섭이 내재하고 있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박영선의 위축과 이선옥의 부상은 작가가 감각하고 있던 당대 현실이 무엇이었는가를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셈이다. 비록 그것이 작가의 “남근적인 위기의식”<sup>47</sup>에 찬 우려의 시선 속에서, 즉 부정적 현실(남한 정부와 미국에 의해 분열된 한반도)에 비견되는 또 다른 부정적 현실(연애하는 중년 여성에 의해 분열된 가정)로 제시되었을지라도 그렇다.

결국 『홍염』·『사선』 연작이 비판을 받는다면 그 근거는 통속성이 아니라 작가가 비판적인 현실인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비판이 결국 여성 인물로만 향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사

47 이 표현은 이철호가 『취우』 연작을 분석하며 사용한 것이다[이철호(2013), p. 121]. 『취우』에서 강순제가 보여주었던 모든 긍정적인 속성들은 『지평선』에 이르러 남성 인물들이 생환하면서 맥없이 소거된다. 이에 대해 이철호는 “염상섭 소설의 문법에서는 그녀 [강순제 - 인용자] 같은 신여성의 주체적 삶이 여전히 번역 불가능한 어떤 것”이었다고 말한다(p. 118). 염상섭의 문학에서 “신여성에 대한 인간적인 시선 뒤에는 근본적으로 남근적인 위기의식이 잠복해 있”었으며, 이것이 한국전쟁 이후의 “가족관계의 재구성, 이를테면 여성 중심으로 재편될지도 모를 새로운 세계의 갑작스런 도래”를 서사적으로 부정하도록 만든 것이다(p. 121).

실은 『홍염』·『사선』 연작을 통속소설로의 전략으로 보는 낯은 시선에서 벗어나 새로운 독해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선옥의 성적 욕망의 발현을 당대 한국사회의 (비유적이고도 현실적인) 위기로 제시하는 염상섭의 방식과 무관하게, 텍스트의 기호화(encoding)와 기호 해독(decoding)이 결코 일치할 수 없다는 홀의 오랜 지적을 상기한다면 이 주제는 대항적 기호체계(oppositional code)를 통해 새로이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sup>48</sup> 이는 곧 작가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적 틀에서 산출했을 메시지를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로부터의 이탈이라는 대안적 증거틀에서 재구성해보는 것이다. 이 재구성은 텍스트 독해의 어떤 자율성 옹호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홍염』·『사선』의 가장 주요한 초점화 대상이라는 선옥이라는 바로 그 점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다. 가장 오랫동안 작품에 노출된 선옥인 만큼 그의 동기와 변화는 다른 어떤 인물에 비해서도 선명하게 나타나고, 미완인이 작품 속에서 유일하게 모종의 결말을 맞이하는 것도 선옥이기 때문이다.

선옥이 호남을 욕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취원의 경우 호남의 미모에 첫눈에 반하는 장면이 상세하게 제시되지만, 선옥이 호남에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직접적으로 서술된 것이 없어 일견 모호하게 여겨질 수 있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선옥-호남의 연애나 선옥-호남-취원의 삼각관계가 아닌, 선옥과 취원이라는 두 여성 인물의 관계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 선옥이 별안간 호남과 가까워진 것은 박영선이 위병으로 입원하고 장취원이 어머니 제사를 지내러 자리를 비운 사이, 즉 선옥이 집주인으로서 호남에게 아침을 먹이면서부터였다. 중요한 것은 이 행위가 정확히 취원에 대한 모방이라는 점이다. 취원도 반년 전 정월 초이튿날 호남에게 아침을 먹이면서부터 그를 쟁취했다는 확신을 얻었던 것이다. 취원은 선옥의 현재가 자신의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호남이가 오늘

48 기호화와 기호 해독 사이의 (비)대칭성 및 기호 해독의 세 가지 기호체계(dominant-hegemonic code, negotiated code, oppositional code)에 대해서는 스텐우트 홀(2015), 임영호 편역, 『기호화와 기호 해독』, 『문화, 이데올로기, 정체성』, 컬처북, pp. 417-435 참고.

아침에 안에서 아침밥대접을 받았다는말에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것이, 역시 그날아침에 맞겹상으로 밥을 먹던 그 광경<sup>49</sup>이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취원은 이때부터 선옥을 부쩍 의식하고 의심한다. 귀순 어머니가 선옥을 보며 “아씨 요새루 픽 짧어지셨어. 사랑채아씨를 따라가시는게야.”<sup>50</sup>라고 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취원에 대한 선옥의 모방을 픽 적실하게 지적한 것이다.

요컨대 선옥이 호남을 욕망하는 것은 선옥이 모방하는 취원이 호남을 욕망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이러한 삼각형의 욕망에서 중요한 것은 욕망의 대상(최호남)이 아니라 중개자(장취원)이다.<sup>51</sup> 그렇다면 취원은 어떤 속성을 대변하는가? 그는 “남에게 넘보이지 않고 버젓이 행세를하는 기골이 있”<sup>52</sup>고, “딱 [미주]치면 기가 눌러서 마음껏 인사를 하”<sup>53</sup>게 되는 인물로 묘사된다. 오랫동안 기생으로 지냈지만 영감을 만나서 살 때는 “뜬소문 하나 없이 얌전히 살아 주”기 때문에 평판이 깔끔하고, 소옥의 요릿집에 자금을 대어줄 만큼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 취원과 호남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애정의 무게는 취원의 것이 훨씬 무겁지만, 이것은 호남의 영향력을 높이기보다는 취원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취원은 보료위에 한 가운데 앉았고, 호남이는 발치끼로 비스듬이 물러앉은 꼴”<sup>54</sup>은 취원이 호남의 집안에 첩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가장으로서 진입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가장으로서의 취원은 호남의 본처인 영애와 자식들에게도 지성껏 살림을 도우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두여자[취원과 영애 - 인용자]는 이 음식으로 정이 통하고, 호남이택의 마음은 차츰차츰 관대하여져

49 염상섭(1952. 3), 「홍염」, 『자유세계』, p. 211.

50 염상섭(1952. 1), 「홍염」, 『자유세계』, p. 188.

51 “대상을 향한 돌진은 근본을 파헤쳐보면 중개자를 향한 돌진이다”[르네 지라르(2001), 김치수·송의경 역,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한길사, p. 51].

52 염상섭(1952. 1), p. 191.

53 염상섭(1952. 1), p. 190.

54 염상섭(1952. 3), pp. 203-204.

갔던것”<sup>55</sup>이라는 대목은 이들의 독특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

선옥이 근본적으로 욕망하고 있던 것은 이와 같은 취원의 경제력, 진취성, 가장으로서의 속성 등이었다고 볼 수 있다. 호남에게 아침을 먹인 날을 기점으로 선옥은 “이때까지 보지못하던 화려한 표정”으로 “마음을 탁 놓고 느긋이 푸근하게 한바탕 기죽을”<sup>56</sup> 편다. 다분히 취원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선옥의 변화는 ‘최호남의 존재’가 아니라 ‘박영선과 장취원이라는 두 가장의 부재’가, 정확히 말하자면 두 가장의 부재에 따른 집주인으로서의 자신의 위치가 촉발시킨 것이다. 이것은 이후 장남 상근이 등장해 그들의 집을 점령한 뒤 선옥에게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했을 때 선옥이 보이는 불쾌감의 이유이기도 하다.<sup>57</sup> 이렇게 본다면 취원이 선옥에게 빼앗길까 봐 불안해하는 것 역시 근본적으로는 최호남이 아니라 자신이 점하던 위치였을 수 있다.

선옥과 취원은 서로에 대한 견제와 질투를 이어가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서사는 남성을 사이에 둔 경쟁 관계로만 규정할 수 없다. 작품의 결말부에서 두 인물은 공습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단둘이 술자리를 가진다. 마치 취원과 영애가 단순한 처첩관계로 규정될 수 없는 정을 나누고 있듯, 선옥과 취원도 이 장면에서 서로에게 기묘한 친밀감을 느낀다. 그간의 시간을 돌아보며 날을 세우기도 하나 “한편으로는 어쩐지 그만큼 흥허물이 없다는 친숙한생각이 드는 것”<sup>58</sup>이다. “그리 반가울것도 없는 터”였지만 함께 음식을 먹고 술잔을 나누면서 “그래도 마음들이 풀”<sup>59</sup>린

55 염상섭(1952. 3), p. 212.

56 염상섭(1952. 1), p. 184.

57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이 계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나 아시구 그러슈?」(…) 선옥이는 아지두 못하면 가만 있으라는 말에 기가 막혀서 선옥이는 마루로 향하여 돌아 앉으며 방바닥을 쳤다”[염상섭(1956. 10), p. 272].

58 염상섭(1957. 3·4), p. 108.

59 염상섭(1957. 3·4), p. 109.

다. 그리고 이 자리를 끝으로 두 사람은 “좋은 낮으로 헤어져”<sup>60</sup> 간다. 선옥과 취원이 이처럼 서로를 인정하고 일종의 안정감을 형성한다고 할 때, 그 이후로 선옥과 호남의 연애 장면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선옥은 더 이상 취원의 욕망을 모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미완의 작품에서 완성된 서사 줄기가 있다면 그것은 취원에 대한 선옥의 모방과 그에 따른 변화, 그리고 상호 인정을 통한 안정감 형성으로 이어지는 선옥과 취원의 관계 발전의 서사이다.

이 지점에서 『취우』의 강순제를 떠올려보는 것도 좋겠다. 『취우』에 대해 여러 선행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바는 강순제의 주체적 여성으로의 변화가 ‘예외상태’의 산물이라는 것, 즉 김학수 영감이 사라지고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면서 기존의 질서가 정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이 었다.<sup>61</sup> 물리적이거나 상징적인 가부장제가 사라지면서 억압되어있던 여성의 욕망이 발현되었다는 것이다. 『홍염』·『사선』의 선옥의 욕망도 같은 계기로 발현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sup>62</sup> 이 작품은 여성의 욕망이 가부장의 존재/부재에만 종속된 것이 아니라 여성 사이의 관계를 통해 촉발되고 전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1950년대에 남한 정부의 반공주의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지 않은 채 분단의 계기를 논하고 반전(反戰) 통일이라는 지난한 대안을 놓지 않았던 박영선의 존재는 염상섭이라는 당대 남성 지식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값진 결실임이 분명하다. 다만 그는 탈식민적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청산해야 할 또 다른 과제인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까지는 볼 수 없었다. 이 선옥이나 장취원과 같은 염상섭 소설 속 여성 인물들이 전통적인 가족관계

60 염상섭(1957. 3·4), p. 109.

61 정보람(2012), 「전쟁의 시대, 생존의지의 문학적 체현」, 『현대소설연구』 49, 한국현대소설학회, pp. 344-345; 이철호(2013), pp. 115-117; 배하은(2015), pp. 194-198; 김영경(2017), pp. 302-303; 오테영(2020), pp. 26-28면.

62 오테영의 연구가 이러한 시각을 보여준다[오테영(2020), pp. 26-27].

를 이탈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독해할 필요는 여기에 있다. 『홍염』·『사선』 속 위축된 남성성과 가장으로서의 여성들을 ‘사회의 위기’로도 ‘통속성의 함몰’로도 읽지 않고 한국전쟁기를 구성하고 있었던 또 하나의 시대적 요소로 간주하면서, 『홍염』·『사선』에 대한 다양한 독해를 재개해야 할 시점이다.

## 5. 나가며

염상섭의 『홍염』·『사선』 연작(1952~53, 1956~57)은 일상성·통속성에 매몰된 태작으로 치부되어 2000년대 이후 염상섭의 후기 문학이 적극적으로 재평가되는 동안에도 오랫동안 소외되어왔다. 이 글은 『홍염』·『사선』에 대한 통념을 벗겨내고 이 작품이 염상섭의 문학세계에서 적절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다.

본고가 『홍염』·『사선』에 대해 주장하고자 한 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먼저, 『홍염』·『사선』은 한국전쟁에서의 가시적인 적(북한과 공산진영)이 아니라 전쟁을 불러온 비가시적인 책임자들(미국과 남한정부)을 시야에 두고자 한 작품이다. 염상섭은 작중 인물 박영선이 1950년 6월 말 딜레스 고문의 방한을 보며 쓴 공개장을 통해, 이 시기는 단지 한국전쟁의 전야가 아니라 중소조약 체결 이후 불안을 느낀 미국이 대일강화조약을 준비하면서 냉전을 심화시킨 시기임을 상기시킨다. 또한 국군 중위인 박상근의 뒤늦은 출정 장면 및 그와 대조되는 정부의 허위 선전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미국과 유엔에 지나치게 의존하던 남한정부가 한국전쟁 초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면서 혼란이 가중되었음을 폭로한다. 『홍염』이 한국전쟁 중 연재되었던 작품임을 고려하면 미국과 남한정부에 대한 이러한 염상섭의 날카로운 비판의식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홍염』·『사선』은 남북협상 및 평화통일을 지지했던 해방기

중간과로서의 염상섭의 심경을 우회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요하는 작품이다. 염상섭은 1950년 서사적 현재와 1948년 과거에 벌어진 특정 사건들을 선별하고 한 데 모아 제시하는데, 이 사건들을 묶어주는 주제는 바로 좌우합작 통일론이다. 그가 이 작품에서 제2대 국회의원 선거인 1950년 5.30 선거를 다루면서 ‘무소속=중간과’의 대두와 국회 부의장 조봉암의 존재를 거론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조봉암이 해방 이래 일관적으로 반전 평화통일론을 주장해온 대표적인 진보 인사임을 고려한다면, 『홍염』·『사선』은 해방기에 중간과로서 염상섭이 지향했던 평화 통일론이 여전히 포기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홍염』·『사선』의 연애서사는 냉전기 남성 지식인인 염상섭이 가질 수 있던 정치적 상상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오늘날의 독자들이 새로운 정치성을 발견해낼 수 있는 가능성의 장이다. 우선 이 글은 염상섭이 ‘한반도의 평화를 깨뜨린 책임자’와 ‘가정의 평화를 깨뜨린 책임자’를 의도적으로 중첩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홍염』·『사선』의 정치의식과 연애서사의 괴리가 구성상의 파탄을 낳았다는 기존의 시각을 탈피하고자 했다. 그리고 통속소설이라는 『홍염』·『사선』의 ‘오명’이 기실 여성의 욕망 발현을 통속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 위에서 연애서사 자체의 의의를 재고하고자 했다. 선옥-호남-취원의 삼각관계가 아닌 선옥과 취원의 관계 발전에 초점을 맞추면 『홍염』·『사선』의 연애서사는 남성 가부장의 존재/부재가 아닌 여성들 간의 모방과 인정을 통해 여성의 주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가정을 이탈해 팽창하는 여성들의 활동력을 염상섭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지 모르나, 작가의 시선과 별개로 그러한 모습들은 새로운 시대의 전조로 나타난다.

## 참고문헌

### 자료

- 염상섭(2018), 『홍염·사선』, 글누림.  
 염상섭(2014), 『염상섭 문장 전집 III』(한기형·이혜령 편), 소명출판.  
 염상섭(1956. 10~1957. 4), 「사선」, 『자유세계』.  
 염상섭(1952. 1~1953. 2), 「홍염」, 『자유세계』.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우리신문』.

### 논저

- 강우진(2017),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조봉암의 약진요인에 대한 분석」, 『현대정치연구』 10(1),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강정구(1994), 「전상인의 반론에 대한 답론」, 『한국과 국제정치』 10(1),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강정구(1993), 「5·10 선거와 5·30 선거의 비교연구」, 『한국과 국제정치』 9(1),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김경수(1999), 『염상섭 장편소설 연구』, 일조각.  
 김민수(2020), 「제국을 넘나든 새벽바람, 『효풍』의 미학과 주체의 포이에시스」, 『상허학보』 59, 상허학회.  
 김승배(2020),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동북아시아 비(非)서명국들: 소련, 한국, 중국과 평화조약의 규범 보전」, 『일본비평』 22,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김영경(2018), 「한국전쟁기 '임시수도 부산'의 서사화와 서사적 실험: 염상섭의 '새울림'과 「지평선」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19, 구보학회.  
 김영경(2017), 「적치하 '서울'의 소설적 형상화: 염상섭의 『취우』 연구」, 『어문연구』 45(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김영경(2016), 「단정 이후 염상섭의 정치의식과 미완의 서사: 염상섭의 『난류』론」, 『현대소설연구』 64, 한국현대소설학회.  
 김윤식(1987), 『염상섭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일영(1995), 「농지개혁, 5·30선거, 그리고 한국전쟁」, 『한국과 국제정치』 11(1),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김재용(1999), 「분단을 거부한 민족의식: 8.15 직후 염상섭의 활동과 『효풍』의 문학사적 의미」, 『국어국문학연구』 20, 원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김중균(1974), 『염상섭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4.  
 김종욱(2004), 「한국전쟁과 여성의 존재 양상: 염상섭의 『미망인』과 『화관』 연작」, 『한국근대문학연구』 9, 한국근대문학회.  
 김채형(2016),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법적체제와 주요국가의 입장분석」, 『인문사회



- 과학연구』 17(2),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김태기(1999), 「1950년대초 미국의 대한(對韓) 외교정책」, 『한국정치학회보』 33(1), 한국 정치학회.
- 김태우(2017), 「조봉암의 평화사상: ‘적극적 평화론’의 관점에서의 고찰」, 『통일과 평화』 9(1),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김태진(2005), 「전후의 풍속과 전쟁 미망인의 서사 재현 양상: 염상섭의 『미망인』 『화관』 연작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7, 한국현대소설학회.
- 김학균(2014), 「염상섭 장편소설에 나타난 미국인과 ‘아메리카니즘’: 『이심』과 『효풍』을 중심으로」, 『도시인문학연구』 6(1),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 나보령(2017),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피난지 부산과 아메리카니즘」, 『인문논총』 74(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노경채(2010), 「조봉암·진보당·사회민주주의」,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류지아(2010), 「한국전쟁 전후, 대일강화조약 논의에 의한 아시아 내에서 일본의 안보와 위상」, 『한일민족문제연구』 18, 한일민족문제학회.
- 르네 지라르(2001), 김치수·송의경 역,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한길사.
- 박성태(2021), 「단정 수립 이후 염상섭 문학의 중도적 정치성 연구(1948~1950): 민족통합과 친일과 청산 문제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83, 한국현대소설학회.
- 반재영(2021), 「붉은 청년과 반공의 교양: 한국전쟁기 젊음(적)의 재현과 성장(전향)의 서사」, 『한국문학연구』 65, 한국문학연구소.
- 배경렬(2007), 「한국전쟁 이후의 염상섭 소설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32, 현대문학이론학회.
- 배하은(2015), 「전시의 서사, 전후의 윤리: 『난류』, 『취우』, 『지평선』 연작에 나타난 염상섭의 한국전쟁 인식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45, 한국현대문학회.
- 스튜어트 홀(2015), 임영호 편역, 『문화, 이데올로기, 정체성』, 컬처북.
- 신영덕(1992), 「전쟁기 염상섭의 해군 체험과 문학활동」, 『한국학보』 18(2), 일지사.
- 신옥희(2020),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한미일 관계의 위계성 구성」, 『한국과국제정치』 36(3),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안서현(2013), 「『효풍』이 불지 않는 곳: 염상섭의 『무풍대』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39, 한국현대문학회.
- 오유석(1992), 「1950년 5.30총선: 위기로 몰린 이승만 정권」, 『역사비평』 봄호.
- 오테영(2020), 「한국전쟁기 남한사회의 공간 재편과 욕망의 동력학: 염상섭의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사이間SAI』 29,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 유이상(2015),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회의와 한국의 참가문제」, 『사림』 53, 수선사학회.
- 이봉범(2008), 「단정수립 후 전향의 문화사적 연구」, 『대동문화연구』 6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이종호(2018), 「냉전체제하의 한국전쟁을 응시하는 복안」, 『홍염·사선』(염상섭 저), 글누림.

- 이철호(2013), 「반공과 예외, 혹은 불가능한 공동체: 『취우』(1953)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8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이현주(2001), 「해방 후 조봉암의 정치활동과 제헌의회 선거: 인천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황해문화』 30, 새얼문화재단.
- 이혜령(2012), 「사상지리의 형성으로서의 냉전과 검열: 해방기 염상섭의 이동과 문학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34, 상허학회.
- 전상인(1994), 「강정구의 “5·10 선거와 5·30 선거의 비교연구”에 대한 반론」, 『한국과 국제정치』 10(1),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전훈지(2017), 「미국화 수용에 따른 작중 인물의 태도 연구: 해방 이후 염상섭 소설을 중심으로」, 『춘원연구학보』 10, 춘원연구학회.
- 정보람(2016), 「탕녀와 가장: 1950년대 전쟁미망인의 이중적 표상 연구」, 『현대소설연구』 61, 한국현대소설학회.
- 정보람(2012), 「전쟁의 시대, 생존의지의 문학적 체현: 염상섭의 『취우』, 『미망인』 연구」, 『현대소설연구』 49, 한국현대소설학회.
- 정종현(2014), 「1950년대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정치와 윤리: 『젊은 세대』, 『대를 물려서』를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62, 동악어문학회.
- 정진아(2009), 「조봉암의 평화통일론 재검토」, 『통일인문학』 48,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허윤(2013), 「1950년대 전후 남성성의 탈구축과 젠더의 비수행」, 『여성문학연구』 30, 한국여성문학학회.

원고 접수일: 2022년 1월 10일, 심사 완료일: 2022년 1월 22일, 게재 확정일: 2022년 2월 8일

## ABSTRACT

# (Re)constructing the Korean War Period

Yu, Seohyun\*

Yom Sang-seop's *Hongyeom-Saseon*

Yom Sang-seop's linked novellas *Hongyeom* (*Red Flame*) and *Saseon* (*Dead Line*), have long been excluded from research as poor works mired in the popular and everyday. However, it is worth re-illuminating the following aspects of these works. First, in relation to the Korean War, *Hongyeom-Saseon* focuses not on the visible enemy (North Korea and the Communist Camp), but on invisible bearers of responsibility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n Government). These works remind us that late June, 1950 was not only the eve of the Korean War but also a period in which a United States anxious about the 1950 Sino-Soviet Treaty deepened the Cold War while preparing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At the same time, the novellas reveal how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lying too heavily on the US and UN, compounded the confusion in the early days of the war by acting irresponsibly. Second, *Hongyeom-Saseon* offers insight into the contemporary mind of Yom Sang-seop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as a centrist and supporter of the 1948 North-South Conference and peaceful unification. Yom presents several specific events occurring in 1948 and 1950 which are connected by the idea of unification via left-right coalition. This context also explains the centering

---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he novellas' discussion of the May 30, 1950 elections on the rise of "independent (=centrist)" candidates and peaceful-unification candidate Cho Bong-am. Lastly, *Hongyeom-Saseon*'s romance narrative not only reveals the limits of Yom Sang-seop's imagination as a male intellectual in the 1950s, but also offers contemporary readers the possibility of discovering a new politics within it. Yom conveys his concerns about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cold war by overlapping 'those responsible for breaking the peace on the peninsula' with 'those responsible for breaking the peace of the family.' In the process, middle-aged women characters who break away from the family become the central object of criticism in the two novellas, yet because these characters become the focal point of the narrative, oppositional decoding is made possible. Turning our attention from the love triangle of Seonok-Honam-Chwiwe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Seonok and Chwiweon themselves, it is possible to see in *Hongyeom-Saseon*'s romance narrative not simply the presence/absence of the patriarch, but also a process of women's identity formation via imitation and recognition between two women.

**Keywords** Yom Sang-seop, *Hongyeom*, *Saseon*, Cold War, 1950 Elections, Women's Identity